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초강도강행군으로 이어진 혁명생애

황 신 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깎그리 다 바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남기지 않으시고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다가 달리는 열차에서 순직하신 장군님과 같으신 그런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초강도의 현지도강행군길은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다. 력사는 아직 위대한 장군님과 같이 강행군으로 애국을 시작하시고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을 강행군실록으로 수놓으시며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끝까지 걸어온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무엇보다먼저 찾으시는 대상의 방대한 영역에 있어서나 지도하시는 분야의 다방면적인 폭에 있어서나 료례가 없는 초강도강행군으로 이어진 혁명생애였다.

선군의 원칙에서 인민군부대, 구분대들부터 먼저 찾으시고 인민군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불원천리 찾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특이한 현지시찰방식은 그 하나하나가 료례를 찾아볼수 없는 말그대로 초강도의 강행군과정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대우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선군의 원리로부터 군건설전반에 대한 현지시찰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시고 언제나 강행군방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앞으로는 전사들과 같이 흠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라고 하시며 준엄한 시련의 시기 험한 령길과 파도사나운 배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군부대, 구분대들을 쉬임없이 찾고 또 찾으시였다.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아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시찰은 정녕 군종과 병종에서 차이가 없고 지형조건에 구애되지 않으며 시간과 계절에서 구별없는 무한대한 헌신의 강행군길이었다.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험난한 현지시찰로정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7(1998)년 8월 어느날 오성산을 찾으시였다.

가파로운 산비탈과 벼랑길을 돌아 고지의 정점까지 오르자면 152굽이나 에돌며 올라가야 하는 오성산은 적초소와의 거리도 매우 가까와 언제 적들이 도발해올지 알수 없는 위험한 최전연초소였다. 그날따라 비가 쏟아지고 령길이 몹시 매끄러워 아차 한번 잘못디디면 천길벼랑에 굴러떨어질수 있는 그 험한 산길을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한치한치 톱아올랐다.

일군들이 눈물을 흘리며 앞을 막아나섰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지에 인민군군인

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고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오늘과 같은 곳은 날씨에 전선의 험한 령길을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며 굳이 고지길을 재촉하시어 초소의 군인들을 찾으시였다.

초소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부대군인들이 방어진연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금성철벽의 보루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을뿐 아니라 결린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신 후 부대군인들에게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수여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남기시였다.

인류사에 전방지휘소를 찾아 전선길을 달린 군사령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도 혁명의 령도자,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 전방의 자그마한 지휘소가 위치한 이런 험산오지를 희생적인 강행군으로 병사들을 찾았다는 사연깊은 일화는 그 어디에서도 있어본적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오성산시찰은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험산준령도 넘고 하늘끝이라도 기어이 찾아가보시려는 장군님의 드립없는 강행군의지의 뚜렷한 과시였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한 뜻깊은 자리에서 자신께서는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냈다고,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이런 결사의 각오로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도의 현지지도길에는 적의 총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판문점의 전선길도 있었고 사나운 풍량을 헤쳐간 초도의 배길도 있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으로 고이 간직되어있는 철령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눈비를 맞으면서도 넘으시였으며 밤에도 넘으시고 이른새벽에도 넘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병사들을 찾아 넘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찾으신 초도를 비롯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은 선군장정의 길에 바치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증견자로 오늘도 길이 남아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단 인민군대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들을 찾고 또 찾으시고 공장에서 전선으로, 전선에서 농장으로, 다시 전선에서 건설장으로 달리시며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대전으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제와 인민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다방면적인 폭에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98(2009)년의 현지지도는 류례가 없는 강행군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8(2009)년 새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때로부터 10여일안팎에 원산, 대안, 기양으로 다시 평양시안의 경공업공장에서부터 인민군부대들의 전투훈련장과 룡악산유원지건설장으로서의 눈보라강행군길을 단행하시였다.

하기에 2009년말 세계의 어느 한 통신은 《김정일총비서의 활동보도 200번째 돌파》라는 제목으로 《김정일총비서의 활동보도는 이로써 올해 들어와 200번째를 넘어섰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05년의 129건을 훨씬 롱가하는 최고건수를 기록한것으로서 불면 불휴의 현지지도로 다시 한번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라고 보도하면서 이것은 《폭증한 현지지도》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달인 주체100(2011)년 12월에도 초강도강행군으로 현지지도의 나날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날을 이틀 앞둔 12월 15일에도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생의 마지막날에도 초강도강행군길에 오르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초강도강행군으로 오늘의 혁명적대고조를 승리로 이끄시면서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참전자는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빛나는 모범으로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다음으로 단행하시는 그 비상한 속도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종횡무진의 빨찌산식초강도강행군으로 이어진 혁명생애였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땅을 주름잡고 시간의 흐름을 휘어잡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이였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펼치는 우리 조국이 몇해안에 경제강국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자면 진군속도를 최대한로 높여야 하며 그러자면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내달려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였다.

강성국가건설대전의 하루한시가 너무도 귀중하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의 한시간을 열시간, 백시간 맞잡이로 여기시고 구보로, 습보로 강행군길을 이어나가시였다.

언제나 자신에게 비상이 높을 요구성을 제기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순간의 휴식도 없이 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의 걸음걸음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오늘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빛내이며 어떤 애국의 정신과 각오로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50년대의 옛 격전장에서 군인들에게 용맹을 안겨주시는가 하면 적들이 그에 신경을 쓸 때에는 벌써 파도사나운 바다를 헤가르며 어느 한 섬방어대에 가계시였고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변에 대한 현지지도소식으로 우리 인민모두가 흥분과 걱정애 넘쳐있을 때 쌓인 피로도 푸실사이없이 전선중부를 찾으시고 그 방향으로 세계가 초점을 맞추기도 전에 온밤 수천리를 달리시여 대각선방향의 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시는 등 백두산축지법으로 초강도강행군길을 걸으시였다.

그러기에 우리 조국의 일거일동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살피고있다는 적들의 정보통신망들도 언제나 백수, 천수를 앞질러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빨찌산식강행군앞에서는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그 로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초강도강행군이였다.

하기에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험난한 선군장정, 초강도강행군길을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며 그 하나하나의 로정에서 장군님의 애국의 념, 애국의 숨결, 애국의 기상을 오늘도 뜨겁게 새겨안고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다음으로 계절에서 구별을 모르고 낮과 밤이 따로없이 진행된 말그대로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으로 이어진 혁명생애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궂은날, 마른날 가림이 없이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가는 전선길은 나의 삶과 투쟁의 전부이다, 전선을 끊임없이 찾아가는것은 나의 중요한 일과의 하나라고 교시하시였다.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단행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그이의 현지지도강행군은 대소한의 강추위도, 한여름의

폭양도 결코 지체시킬수 없었다.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2009년말부터 2010년 1월까지의 우리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1945년이후 지속시간이 매우 긴 강추위기간이었다.

하늘이 미여지게 내리는 폭설을 헤치느라 달리는 눈무지가 되어 알아볼수 없었다는 야전차에 대한 일화와 얼마나 세찬 눈보라속을 뚫고 달리었으면 야전차의 문이 얼어붙어 열리지 않았다는 전설같은 일화들은 사나운 강추위속에서도 언제나 초강도강행군길을 멈추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사나운 강추위에도 가림없이 조국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은 한여름의 삼복철에도 쉬임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7(2008)년 8월의 말복날에는 리원군산림경영소를 찾으신데 이어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는 등 온 하루를 말그대로 땀으로 미역을 감다싶이 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걱정없이 대할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철주야의 강행군, 애국헌신의 천만리가 있어 지금까지 사전에도 없었던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이라는 말이 선군조선의 시대어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최단기간내에 실현하시려는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의 발현이었다.

167만 4 610여리,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로정의 총연장길이이다.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초강도강행군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고찾으신 단위는 무려 1만 4 290여개에 달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2012년을 강성국가건설사에 특기할 자랑스러운 승리의 해로 빛내일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때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3년간에 찾으신 단위만도 근 1 000개나 된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조국과 혁명,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으로 수놓아진 초강도강행군의 혁명생애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군현지지도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혁명실록을 선군조선의 만년재보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